

# 서민들 애환 달랜 '트로트'...예술로 재탄생

## CULTURE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ACC 개관 10주년 기념 첫 번째 전시인 '애호가 편지'를 오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2관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전시 전경.

시대의 삶과 애환이 담긴 대중가요 '트로트'를 소재로 한 전시가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은 ACC 개관 10주년 기념 첫 번째 전시인 '애호가 편지'를 오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2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트로트에서 드러나는 도시 풍경과 감각을 매체 예술로 재해석한다. 도시의 삶을 긴 세월 겪어낸 트로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본연의 감수성을 되짚어보고 도시의 일상 속 의미와 가치를 구축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위로한다.

'애호가 편지'는 1900년대 초 판타지를 이르던 말로, 전시는 작품 전시와 ACC 아카이브 전시, 오아시스레코드 아카이브 전시로 구성된다. 작품은 총 14종이며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등 5개국 13팀의 작가가 참여해 두 개의 주제로 나눠 선보인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에서는 한 세기 넘게 사랑받으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은 트로트와 도시민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두 번째 주제인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뿔뿔'에서는 트로트와 유사한 정서와 형식을 보이는 아시아의 대중음악과 연계된 문화를 조망한다. 전시는 키네틱 설치, 상호작용 영상,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표현된 작품들을 통해 도시 속 투박하고 지남한 도시민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려한다.

작품과 연계한 아카이브 전시 2종도 함께 열린다. 'ACC 아카이브: 아시아의 대중음악 컬렉션'에서는 ACC가 수집한 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대중음악 중 트로트와 유사한 감성과 형식을 지닌 노래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음반사인 오아시스레코드와 협업한 '오아시스레코드 보는 트로트'의 역사와 변천'에서는 오아시스레코드가 보유한

트로트 음반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주현미, 김연자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의 초창기 계약서와 1970년대 심의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21일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는 참여 작가 메이덴키와 이바사의 라이브 퍼포먼스 '메카 트로트'가 열린다. 또 오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는 난장 각설이 오토팔과 테크노 각설이 DJ 시트의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가 펼쳐진다. 행사는 각설이 품바의 옛가위 및 대북 연주와 전자음악 디제이의 협연을 통해 오랜 전통을 가진 서민 문화임에도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에 집중한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는 장르가 된 트로트는 전속한 소재를 통해 관람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며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된 트로트와 아시아의 뿔뿔을 문화전당에서 전시로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김다경 기자 alsjds194@gwangnam.co.kr

## '운명의 봄'으로 그려내는 강렬한 희망과 승리

시향 정기연주회 예당 대극장서 내달 25일... 슈만·베토벤 등 곡 선사

광주시립교향악단은 394회 정기연주회 '운명의 봄'을 오는 4월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이번 연주회는 예술감독 이병욱의 지휘로 낭만주의의 깊이있는 정서, 고전주의의 정제된 서정성, 그리고 운명을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강렬한 서사를 담은 세 작품으로 구성했다. 운명과 맞서는 인간의 의지와 그 속에서 읊드는 희망을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연주의 서막을 여는 슈만의 '만프레드 서곡'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의 극시 '만프레드'(Manfred)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인간 내면의 갈등과 숙명을 선율로 형상화한다.

격정적인 음향과 긴장감 넘치는 화성을 통해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서사의 시작을 일린다.

이어지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3번'은 고전주의의 협주곡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특히 2악장에서 드러나는 서정적 아름다움과 섬세한 감성은 겨울을 지나 새봄의 여명을 맞이하는 듯한 정서를 담아낸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협연자로 나서 모차르트 특유의 우아함과 내면의 깊이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협연자 김태형은 엔 엘리자베스 콩쿠르, 포르투갈제피아노콩쿠르, 트리에스테 국제실내악콩쿠르, 멜버른 국제실내악 콩쿠르 등 피아노 및 실내악 분야에서 다수의 1위 및 입상을 거뒀다.

현재 경희대 음대 교수로 임용돼 후학을 양성 중이며, 서초문화재단 '서초M스타즈' 4기 음악감독과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시리즈에서 진행자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연주의 대미를 장식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은 '운명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불멸의 명작이다. 운명을 상징하는 네 개의 강렬한 음으로 시작하는 제1악장은 거대한 도전과 맞서는 인간의 투쟁을 그려내며 이를 거쳐 제4악장에서 밝은 C장조로의 극적인 전환을 통해 마침내 승리를 선언한다.

절망의 희망으로, 시련을 새로운 도약으로 승화시키는 이 작품은 '운명의 봄'이라는 부제의 의미를 가장 강렬하게 대변한다.

이번 연주회는 운명의 장벽을 넘어 희망을 꽃피우는 봄의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삶의 역동성과 예술의 숭고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유료회원권을 대상으로 선예매가 시작되며,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일반회원 예매가 가능하다.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김다경 기자 alsjds194@gwangnam.co.kr



광주시립교향악단의 394회 정기연주회 '운명의 봄'이 4월 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 베니스비엔날레서 건축전 한국관 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건축전 계획안 발표 '두껍아 두껍아...' 주제 양예나·이다미 등 출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아라코(ARKO))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대학교 아르코미술관에서 오는 5월 10일 개막하는 2025년 베니스비엔날레 제19회 국제건축전에서 선보일 한국관 전시 계획안을 발표했다.

한국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개최되는 올해 한국관 전시는 '두껍아 두껍아: 집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고 김석철과 프랑코 만쿠조가 공동 설계한 한국관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고, 베니스비엔날레 국가관의 건축적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역대 건축전 한국관 전시 최연소의 예술감독 CAC(Curating Architecture Collective: 정다영·김희정·정성규)와 참여작가 김현중(아틀리에케이케이치제이), 박희찬(스튜디오하지), 양예나(플라스티크판타스틱), 이다미(플로라엔파우나)로 구성된 지난 30년간 한국관이 쌓아온 역사를 신선한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한국의 유명한 전래동요인 '두껍아 두껍아'를 은유적 틀로 삼아 풀어간다. 전시의 보이지 않는 화자인 두껍비는 동서양 문화권에서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는 설화적 존재로, 전시는 나무, 땅, 바다로 둘러싸인 자르디니 공원 일대의 공동 유산들을 환기하며, 상호 돌봄적 관계에 대한 다층적 서사로 확장한다.

참여작가들은 기후위기,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전지구적 위기 상황과 공명하는 토대 위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미래와 자르디니 공원을 내 타 국가관과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 먼저 이다미 작가는 한국관의 지난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존재들을 화자로 내세워 다양한 존재들이 공존하는 한국관의 의미를 돌아보고, 양예나 작가는 몇천만 년 전에 묻혀 있던 가상의 땅속 이야기의 허구적인 전개를 통해 자르디니 공원의 원초적 시간과 공간을 다룬다. 박희찬 작가는 한국관을 둘러싼 나무에 반응하는 건축 장치를 만들어 자르디니 공원의 중요 유산인 나무를 응시하며 김현중 작가는 한국관만의 독특한 공간인 옥상에 설치돼 현대의 공간을 작동시키고, 모든 국가관이 공유하는 하늘과 바다라는 자원을 주목한다.

2025년 베니스비엔날레 제19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는 5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6개월 간 이탈리아 베니스 카스텔로 자르디니 한국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은 현지 시각으로 5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지난해 전시 오픈식 때의 한국관 전경.

## 日 중견시인 '광주항쟁 저항시' 서평 관심

시바타시 진보 매체에 게재 탄압 각오 독재정권 비판 등

'계엄령 선포에 항의 전개' '광주항쟁 체득 때문' 분석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렸지만, 이 책도 또한 그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책이다."

유수한 일본의 시전문지 '시인회의'의 편집장 시바타 산키지(柴田三吉) 시인이 일본 진보 매체 '아카하타(3월 16일 자) 신문' 독서란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서평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망한 최초의 시선집 문명판과 이영진 시인이 저자로 참여한 '누가 그대 큰 이를 지우랴'(도서출판 인동, 1987, 7)를 김정은 전남과학대 교수와 시가과 아카 시인이 공역, 편집해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묶어 펴낸 5월 '광주항쟁의 저항시'가 연이어 주목받고 있는 것.

시바타 시인은 서평에서 현 시국을 의식하며 "전두환이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무력으로 진압을 강행했고, 다수의 시민이 학살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상기시키며 발문을 열었다.

그리고 책에 대해 "1980년부터 1987년에 걸쳐 사건의 진실을 그린 작품을 수록한 시선집"이라며, "1987년 7월 민주화 직후의 광주 시 부근에서 비밀 출판된 책을 재판집해 340페이지에 이르는 작품을 (일본어 표기와) 한글 표기를 병행해서 실었다"고 소개했다.

또 시선집을 특징으로 탄압을 각오하고 시민들이 독재정권에 비판을 가한 점, 피해자의 분노와 슬픔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점을 지적하며, "말하는 것의 고통을 넘어 글로 전해지는 작품들은 시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모아 서독을 무너뜨리고 이론 큰 강과 같은 서사시 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바타 산키지 시인이 인용하며 주목한 시는 김정환 시인의 '5월곡'과 '편지'다. 5월곡은 '푸르디푸른 조선의 하늘 아래서/ 우리는



'아카하타' 신문 2월 16일 자 독서란 서평 전문.

끝까지 우리의 인간성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젓가슴 잘리고 대포·총·칼에 흐트러진 살점으로 낮익은/ 거리에 피바다로 흐르면서도 우리는'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편지'는 '어머니/ 이 편지가 피로 더져서 묻어 있음은 응시하여 주십시오/ 총에 맞은 시체로 들뜬 사막과 높은 산맥에 누운/ 동지들의 피를 찍어 나뭇가지로 이 편지를 쓰기 때문입니다'로 엄숙한 군부독재권력 아래 투쟁에 대한 결의가 담겨져 있다.

시바타 시인은 위의 인용구를 제시하며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침해당했는지 강렬히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경 시인의 시 '광주' 중 '그곳에서 당신은 가슴이였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다. 그는 "광주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월경"이라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렸지만, 이 시선집도 그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바타 시인은 서평 말미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시민들이 즉각 광범위한 항의 행동을 전개한 것도 (광주항쟁)의 역사를 누구나 체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서평을 마무리 지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로제 '아파트',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6위...21주 연속 진입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듀엣한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21주 연속 진입했다.

빌보드는 18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트'가 6위로 전주와 같은 순위를 지켰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핫 100' 8위로 처음 진입한 이 곡은 이후 원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초 반등해 최

고 3위를 기록했다. 이달 4일부터 3주째 6위를 지키며 발매 5개월이 지난지만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는 이번 주 '글로벌'(미국 제외)과 '글로벌 200' 차트에서도 각각 2위를 기록했다.

블랙핑크 동료 멤버 제니의 솔로 1집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는 '글로벌'(미국 제외) 3위, '글로벌 200' 5위로 집계됐다. 연합뉴스